

한국 현대 추리소설의 서사적 주체 연구

송시우, 『달리는 조사관』, 『구하는 조사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arrative Subject of Modern Korean Mystery Novels

진설아

국문초록 추리소설은 늘 탐정과 범인의 두 인물에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보여주는 장르였다. 이 연구는 수잔 S. 랜서의 '시점의 시학'을 기반으로 하여 추리소설에 있어 시점 주체들이 어떠한 권력 구도를 이루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시점 분석을 자격, 접촉, 입장의 세 방향으로 하여, 송시우의 작품들 중 <조사관 시리즈>를 분석하였다. 우선, 자격에서는, 이 서사 안에서 특정한 화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도록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 사이의 불화를 보여준다. 또한 피화자 중 사건과는 간접적으로, 부수적 인물과는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끝으로 이야기가 취하는 입장에서 <조사관 시리즈>는 범인이 누구인가, 범행 방식은 무엇인가,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보다 확장된 형태의 진실 추구를 보여준다. 이들이 찾고 있는 진실은 하나의 범죄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 조직의 문제들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보통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핵심어 추리소설, 서사 주체, 시점, 자격, 접촉, 입장, 송시우

- 차례**
1. 들어가며
 2. 추리소설과 시점의 문제
 3. <조사관 시리즈>의 시점 분석
 4. 나오며

리소설의 또 다른 이름이 말해주듯 탐정이라는 주체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둘째, 때로 범죄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장르의 특성상 범죄라는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범인 역시 추리소설의 주요 인물이다. 끝으로 서사 내에서 사건을 증언하거나 사건의 여파를 삶에 그대로 받아내고 있음에도 긴 시간 동안 그저 사물이나 부수적인 인물로만 여겨진 인물들이 있다. 증인, 부수적인 피해자,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그들이다. 이야기 안에서 주체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가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된다는 것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추리소설 안에서 피해자는 우선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는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야기 속 모든 사건은 그의 죽음 이후에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추리소설의 이야기를

1. 들어가며

추리소설의 역사에서 주체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인물군을 중심으로 하여 제기된다. 우선 탐정소설이라는 추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7039610)
-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전달하는 인물-그가 탐정이든 탐정의 조수나 범인이든-이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진행하는 양상도 추리소설에서는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추리소설은 '추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추리'의 과정은 당연히 계도 범인과 그의 트릭, 그리고 탐정 사이의 밀고 당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리소설 혹은 범죄소설¹을 연구하는 방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수적인 인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추리소설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화자이자 주인공이었던 탐정과 범인 중심의 서사들이 가진 권력구도와 차별적 관점 형성의 문제들을 짚어낸다. 계정민은 탐정이 계층적, 젠더적으로 차별적인 형태의 서사를 전달하는 고전적인 추리소설의 서사 주체 편중의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평가는 주로 고전 추리소설과 하드보일드 시기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그는 현대의 추리소설이 "탐정의 재현을 통해 지배적인 계급, 인종, 젠더담론을 구축한 소설문학의 주요 지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장르라고 본다.²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탐정소설이 서사의 주체로 형상화하고 있는 인물들이 가진 권력구도와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차별의식 간의 관계를 파헤쳐낸다.

또한 현재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사회파 추리소설은 추리소설의 기존 장르적 규칙이 많이 약해진 반면 그만큼 자신들만의 사회 문화적 영향들을 온전히 반영해내는 움직임을 보인다. 박미령은 러시아 현대 추리소설에서 여성 탐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가부장 사회였던 러시아 사회에서 주변적 존재였던 여성을 중심부로 끌어들이며 그들의 서사를 전달하고 있음을 읽어내고

있다.³ 이는 러시아의 사회 변화가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변화가 사회 내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추리소설은 판타지적 장르가 아니며 사회의 변화라는 현실과 관계 맺고 있는 장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리소설이 재현하고 있는 인물들이 해당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에 국한한 연구는 아니지만 2023년 발표된 『악인의 서사』가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악인의 서사'는 모든 범죄나 악을 다루는 서사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서사적 주체의 문제를 제기한다. 추리소설 작가나 평론가, 그리고 범죄와 관련한 콘텐츠들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저자들은 '악의 서사와 재현의 문제를 엄밀히 논'하기 위해 악을 재현하는 다양한 창작 서사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 안에서 단순히 악인의 서사의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 악을 주체로 하는 서사들이 가질 수 있는 이야기적,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악인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었을 때의 문제, 악인을 주체로 하는 것과 악인이 주인공인 서사의 차이점, 나아가 악인이라는 캐릭터가 현대의 다양한 서사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분석해내고 있다.⁴

이러한 연구의 방향성은 추리소설 내에서의 변화와 함께 한다. 추리소설의 황금기와 거친 하드보일드의 시기를 거쳐 사회파의 양상에 이른 추리소설은 그 안에서 다양한 탐정과 범인 그리고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발굴해낸다. 이들은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의 규칙 안에 숨어 있던 사회 내의 권력 관계와 헤게모니를 포착해낸다. 그 과정에서 탐정은 점차 권위와 초능력(과도 같은 추리력)들을 벗어나 평범한 주변의 인물들로 변모해 갔고, 우리 사회가 정말 어두운 곳에 숨겨두고자 했던 소수자들의 이야기

1 이 연구에서는 크게 범죄소설이라는 틀 안에서 구분되는 대상으로서 추리소설을 논하고자 한다. 크게 범죄소설이라는 틀 안에 추리소설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지만, 범죄소설은 '범죄'라는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인물들의 관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리소설'로 대상을 칭한다.

2 계정민, 『범죄소설의 계보학』, 소나무, 2018, 131쪽.

3 박미령, 「타자담론의 서사전략: 전통 추리소설의 모방과 변주」, 『한국노어노문학지』 19(3), 한국노어노문학회, 2007 참조.

4 두나·박혜진 외, 『악인의 서사』(전자책), 돌고래, 2021.

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단지 탐정과 범인 그리고 범죄라는 사건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야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허투루 대하지 않는 것이 소위 사회적으로 ‘좋은’ 추리소설이 갖는 경향이다.⁵

또한 범인 대 탐정이라는 추리소설의 고전적 구도를 벗어나는 것은 현대사회의 악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테리 이글턴은 선을 악의 대립적 요소 혹은 대항하는 요소로 생각해서는 현대사회의 악과 대결하거나 그 본질을 파헤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악의 적은 선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⁶ 이와 같은 이글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추리소설 안에서 악과 대결할 수 있는 대상은 탐정이나 탐정으로 대표되는 존재가 가진 선 혹은 비범함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평범한, 보통의, 일상의 사람들과 삶이 보존되고 있고 또 그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악과 싸우는 방법이다. 추리소설 안에서 앞서 말한 피해자나 부수적인, 평범한 인물들은 대체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범죄라는 사건에 있어 일탈적 지위, 이벤트적 사건성을 보여주는 탐정이나 범인과는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 범죄라는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서사의 과정에 위치시키느냐의 문제는 추리소설의 ‘사회화’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최근 한국의 추리소설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미애, 정혜연, 송시우 등의 여성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발표한 앤솔러지 작품집들이 한 예이다.⁷ 이 앤솔러지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야기의 주체들을 다양한 인물군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 여

성, 외국인 노동자, 히키코모리나 장수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인물들이 곳곳에 배치된다. 단지 범인과 탐정 인물들 사이의 두뇌싸움을 넘어서 그들이 일으키는 사건이 주변의 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이러한 작품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의 하나다. 물론 그저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야기의 주체가 변화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 중 송시우는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드러내주고 있는 작가다. 그는 고전적 형태의 수수께끼 해결 방식의 추리, 역사와 동화의 활용, 나아가 사회파 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현대 추리소설을 확장시키고 있다. 송시우의 작품들은 ‘여성탐정’을 등장시킴으로써 추리소설의 젠더적 영토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사건의 해결에 있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⁸ 그뿐 아니라 송시우의 작품들은 탐정과 범인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서사적 초점을 확장하고 있다는 면에서 추리소설의 서사적 주체가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효과를 보여주기에도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그의 작품 중 매우 다양한 탐정, 범인, 피해자, 주변인의 인물군들이 등장하며 서사적 주체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작품으로 『달리는 조사관』과 『구하는 조사관』 연작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의 인물들에 어떠한 서사적 주체성이 주어지는가를 분석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양자오, 이경민 역, 『추리소설 읽는 법』(전자책), 유유, 2017.

6 테리 이글턴, 오수원 역, 『악: 우리 시대의 악과 악한 존재들』, 이매진, 2015, 134쪽.

7 『단 하나의 이름도 잊히지 않게』(에오스, 2021), 『파괴자들의 밤』(안전가족, 2023), 『미친 X들』(안전가족, 2024) 등이 있다.

8 오혜진, 「여성 탐정 전성시대: 서미애, 박하익, 송시우의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72, 우리문화회, 2021, 449~450쪽.

2. 추리소설과 시점의 문제

추리소설은 ‘현실 세계가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탐정의 무오류성이나 늘 의외의 인물이 범인으로 밝혀지는 작위적인 결말’⁹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비사실적이며 규칙성에만 의존하는 문학이 되기 쉽다. 만약 추리소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문학적 기교 혁신과 현대문학의 실험적인 요소’들과 동떨어진¹¹ 이러한 장르의 규칙성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추리소설은 점차 지루한,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장르로만 남게 될 것이다. 시먼스의 말처럼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글은 결국 하찮아진다.’¹²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추리소설에는 ‘이른바 드라마적 흥미를 지닌 줄거리와 내부에 숨겨진 논리적 문제’라는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추리소설은 ‘논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종의 폐쇄회로 안에 놓여야 하지만 ‘드라마적 흥미’를 위해 동시에 ‘삶 속에서처럼’ 이 사건의 발생 과정과 여파를 현실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¹³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나르스작은 이를 위해 추리소설의 ‘인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소설에서 ‘세계가 규정’되는 것은 인물에 입각해서 가능한 일이며 ‘인물은 곧 세계에 대한 한 관점’임을 소설가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처럼 “인간은 사물이 아니다!”¹⁴

하지만 반면 이러한 문제도 발생한다. 한국 추리소설

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물의 드라마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많은 서사 장르들이 안게 되는 문제는 그것이 ‘개인의 사연’이나 그 사연을 활용한 감정의 극대화인 ‘신파’로 이르는 문제점을 갖기 쉽다.¹⁵ 사회적으로 범죄와 악에 대해 다루고 있는 추리소설의 경우 이처럼 사건의 중심이 탐정이나 범인 개인의 사연이나 신파로만 향하게 되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기는 어려워진다. 결국 문제는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어떻게 추리소설은 자신만의 폐쇄적인 논리 혹은 특정 인물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건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대와 사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시 이 균형의 문제는 추리소설 속 인물의 형상화와 그들의 권력구도 사이의 균형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소설 속 인물들 간의 관계와 각 인물들이 형상화하고 있는 권력구도를 밝혀내는 요소로서 ‘시점’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내용”으로서 시점은 페르소나-작가, 화자, 피화자, 인물들-사이의 관계와 재현된 세계에 대한 일련의 반응과, 그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구조인 재현물을 전달한다. 미학적 도구로서, 시점은 문화가 사회적 현실을 예술적 텍스트로 전환시키기를 허용하는 예술적 문학적 체계를 반영한다. 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시점은 검열을 빠져 나오거나, 흐리게 하기 위하여, 즉 의식의 산물과 그것의 미학적 언어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의식적, 무의식적 효과에 반응하기 위하여, 담론을 구조화하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다.¹⁶

위에서 살펴본 바 문학 내에서의 이야기, 즉 사건과 그것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현실 세계와 분리되어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 그들이 하고 있는 대화는 문학 내에서의 형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학적으로만 쓰이

9 율리히 브로이히, 진상범 역, 「추리문학에 대하여」, 『대중서사연구』 3(1), 대중서사연구회, 1997, 14쪽.

10 전웅갑, 「사실주의적 환상성의 전략으로서의 추리소설기법」, 『외국문학연구』 17, 외국문학연구회, 2004, 330쪽.

11 율리히 브로이히, 앞의 글, 12쪽.

12 줄리언 시먼스, 김명남 역, 『블러디 머더』, 을유문화사, 2012, 185쪽.

13 토마 나르스작, 김중현 역, 『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3, 56~59쪽.

14 위의 책, 94쪽.

15 박인성, 『이것은 유해한 장르다』(전자책), 나비클럽, 2024.

16 수잔 S. 랜서,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 좋은날, 1998, 106쪽.

는 아니라 사회와의 점점 아래에서 의미가 형성되는 일종의 담론구조를 갖는다. ‘담론을 조직하고, 무엇이 인지되고 무엇이 말하여지는지(혹은 말하여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여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소설의 시점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이는 추리소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추리소설의 시점을 분석하는 일은 해당 텍스트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혹은 말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텍스트의 담론 구조를 밝히는 일이다.

랜서는 텍스트 내의 소설 내의 서사적 전략으로서의 시점이 화자와 피화자 사이의 관계, 나아가 화자와 세계(독자와 텍스트 외부를 구성하는), 피화자와 세계 사이의 권력구도와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장치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는 텍스트 내의 시점 분석을 “텍스트의 발화자가 문학적 행위와 맺는 관계에 대한 문제(자격), 발화자와 청취자 사이의 상호작용(접촉), 그리고 텍스트의 인물이 재현된 세계에 대해 가지는 태도(입장)의 문제”로 구체화하고,¹⁷ 이 세 가지 분석의 도구를 통해 소설 속 인물들의 관계적 양상들을 확인해내고자 한다.

우선 ‘자격’은 화자의 권위와 자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즉, 화자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인물이며 해당 이야기를 서술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가 이야기 내에서 또 외부의 독자에게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에서도 중요하지만 추리소설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다. ‘범죄’라는 특수한 사건, 일반인으로부터는 분리되어 있는 사건에 접근할 만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는 일은 추리소설의 성립에서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는 일이다. 나아가 이 인물이 그러한 사회적 정체와는 별개의 문제로 텍스트 내에서 보여주는 개인적 정체성 역시 독자와의 신뢰감을 쌓기 위해 중요한 요소다. 화자는 어떠한 인물인가. 그의 직업, 성별, 인종, 혼인상황, 교육,

계급 등은 어떠한 이미지와 자격을 생성하기 위해 설정되었는가. 이를 통해 독자는 화자의 전형성과 일탈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의 서술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

‘접촉’은 피화자의 정체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화자는 피화자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서술하는가. 화자는 피화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접촉하는가. 결국 그에 따라 피화자는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가가 이 접촉의 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서술적 접촉은 하나의 사건이 문학적 행위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화자의 피화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아가 접촉은 화자의 자격 형성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면서 동시에 화자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일종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이 접촉의 양상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화자가 접촉하는 인물군이 얼마나 폐쇄적인가 혹은 개방적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탐정과 범인의 대립이라는 과거의 추리소설에서 여타의 인물들은 이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그저 필요한 증언만을 위해 존재하거나 혹은 과학적 증거를 배출하는 사물적 대상으로 여겨졌음을 기억하자. 이제 추리소설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피화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갖고 화자와 접촉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독자는 어떠한 구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입장’은 자격과 접촉을 바탕으로 서사 내에서 이들이 보여주고 또 획득하게 되는 관점과 대응 양상을 의미한다. 입장은 자격과 접촉으로부터 파생되는 화자의 피화자(인물, 사건 모두)에 대한 시공간적이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를 통해 화자는 피화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추리소설에서는 화자가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와 해당 사건에서 진정한 범인 혹은 피해자를 누구로 보고

17 수잔 S. 랜서, 앞의 책, 117쪽.

있는가의 문제가 그의 입장을 통해 결정된다. 나아가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과 법, 선과 악의 문제 또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화자가 피화자의 이야기 중 무엇을 채택하고 무엇을 무시하는가의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반영되는 사회(외부세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명시적(혹은 암시적) 입장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의 법적 질서와 선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추리소설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랜서는 입장을 어법적, 시공간적, 심리적, 이데올로기적의 '4가지 평면' 구도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¹⁸

이상의 시점 분석 방법 3가지는 추리소설의 서사 구도, 즉 추리소설의 서사적 주체, 서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인 탐정, 범인, 피해자 그리고 증인들의 관계도를 분석하는 데에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자격'에서는 추리소설의 주된 화자인 탐정(의 입장)의 사회적 혹은 개인적 정체성을 확인하여 해당 텍스트 안에서 주로 화자로 활동하는 탐정의 정체성과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접촉'에서는 주로 화자가 피화자와 어떻게 접촉하는가의 과정을 따라 주된 피화자인 범죄와 범인, 그리고 피해자와 증인(부수적 인물들)에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되며 그들을 얼마나 주요한 인물들로 다루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장'에서는 자격과 접촉의 방식을 통해 생성된 화자와 피화자의 정체성을 통해 해당 텍스트의 범죄의 발생과 사건 해결의 과정 안에서 그들이 선과 악, 범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관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사관 시리즈>의 시점 분석

앞서 살펴본 시점의 분석 방식 즉, 자격, 접촉, 입장의

세 가지 도구를 통해 살펴볼 작품은 송시우의 『달리는 조사관』¹⁹과 『구하는 조사관』²⁰이다. 송시우는 한국추리작가협회의 계간 『미스터리』 신인상 출신 작가로, 2012년에는 단편 『아이의 뼈』로 황금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시우의 작품들은 '장르문학과 리얼리즘을 결합'한 형태로 작가 스스로도 범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사건을 해결하는 명쾌한 추리소설의 세계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자 한다는 목적을 밝힌 바 있다.²¹ 그의 작품들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담아내면서도 추리소설의 장르적 규칙들을 따르는 명쾌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중 이 연구에서 분석할 두 텍스트, 일명 <조사관 시리즈>는 인권위 조사관이라는 탐정들을 둘러싼 연작으로 다양한 인물과 시점을 통해 서사를 진행해 나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조사관 시리즈>는 전통적인 추리소설의 장르적 규칙을 따르면서도 그 안에서 인물들 사이의 권력구도가 전통적 규칙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된다. <조사관 시리즈>는 추리소설 내에서 논리와 드라마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도 사연과 드라마에 치중하여 특정 인물들에게 공감을 유도하게 하는 한국적 추리서사²²의 신파적 측면을 피하고자 애쓰고 있다. 나아가 서사 내에서의 권력구도와 인물 개개인의 서사들을 드러내는 그만의 방식을 통해 탐정과 범인의 대결이라는 기존의 추리소설이 가진 권력구도에 변화를 주고 있는 작품으로 읽어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

19 송시우, 『달리는 조사관』(전자책), 시공사, 2015.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보이지 않는 사람」, 「시궁창과 꽃」, 「거울 얼룩」, 「푸른 십자가를 따라간 남자」, 「승냥이의 딜레마」 이후 인용시 『달리는』과 각 작품명만을 표기함.

20 송시우, 『구하는 조사관』(전자책), 시공사, 2022.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프롬 제네바」, 「버릴 수 없는 여자」, 「감사변태 변신제」, 「끝까지 구하는 남자」 이후 인용시 『구하는』과 각 작품명만을 표기함.

21 「두 번째 추리소설 '달리는 조사관' 쓴 인권위 직원 송시우 씨 "한국적 이야기 담고 싶었다"」, 『경향신문』, 2015.12.8. https://www.khan.co.kr/article/2015120809551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범인 내면서 끌어낸 사회 문제, 추리물 쓰는 이유죠」, 『서울경제신문』, 2023.11.10.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6JYXD13/GK0508>.

22 박인성, 앞의 책.

18 이상의 내용은 수잔 S. 랜서, 앞의 책, 4장 「시점의 시학: 자격, 접촉, 입장」 참조하여 추리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시점 분석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조사관 시리즈>의 서사적 주체, 즉 이야기의 초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는가를 확인해보자.

3.1. 자격

<조사관 시리즈>의 탐정은 한윤서, 배홍태, 이달숙, 부지훈의 총 4인으로 국가인권증진위원회라는 조직의 조사관들이다.²³ 이들은 범죄나 사회적 주목을 받는 다양한 사건에 관여하면서도 그 사건 자체의 해결이 아닌 부수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직업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인권위라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현실 사회에서 탐정으로, 추리소설의 서사적 화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탐정들을 자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관’이라는 지위는 이들에게 탐정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은 주지만 개인적으로 사명감을 안겨주며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절대적 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사관 시리즈>의 탐정들은 인권위라는 사회적 정체성 아래에 통합되지 않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이들이다.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를 호랑이나 사자에 비유한다면 국가인권기구는 승냥이라고, 호랑이나 사자에 맞서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호랑이나 사자가 힘을 남용하여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작고 날랜 몸으로 재빠르게 다니며 살펴보는 짐승. 호랑이나 사자를 끊임없이 신경 쓰이게 하는 존재. (『승냥이의 딜레마』)

인권위라는 기관을 승냥이라고 칭하는 것은 한윤서가 스스로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정작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각 탐정들은 한윤서의

생각에 찬성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들의 사회적 정체는 이렇게 곧바로 이들의 개인적 정체와 연결되지 않는다. 탐정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은 서로 갈등하고 모순을 일으키며 다원화된 ‘탐정상’을 만들어낸다. 이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한윤서: ‘조사’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실과 사실을 발견하는 임무를 가진 기관

배홍태: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기관

이달숙: ‘공감’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들의 감정을 돌보아주는 기관

부지훈: ‘명예’에 초점을 맞추어 초국가적인 권력을 가진 기관

<조사관 시리즈>의 모든 사건들은 이 4인의 탐정을 화자로 하여 서술된다. 예를 들어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진 피의자의 강압에 의한 자백과 그로 인한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승냥이의 딜레마」에서 이 4인이 그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홍태, 달숙, 지훈은 모두 범인들의 무죄를 밝혀내는 데에 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서는 인권과 관계된 부분에 조사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앞의 3인이 왜 범인의 무죄를 밝혀내는 일을 하고자 하는지도 각각 다르다. 홍태는 경찰 권력과 법에 대한 반항심과 정의감에, 달숙은 불쌍히 죽은 피의자에 대한 공감(또한 약간의 호기심과), 지훈은 명예로운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위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자 한다.

결국 이야기의 내용은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게 되는 데에 이르지만 독자는 이 탐정들 모두가 가진 서로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를 공격하며 자신의 시각이 옳다고 주장

23 그 중 부지훈은 조사관이 아닌 정책 사무관이지만 주로 나머지 조사관들과 사건 조사에 참여하므로 공통적으로 조사관으로 칭한다.

한다. 그리고 작가는 그 누구의 손을 완벽히 들어주지 않는다. 이러한 다원적 화자들을 통한 서술의 방식은 특정한 화자에게 권위를 양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형적인 서술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탐정들이 가진 자격들은 한 편으로는 공감이지만 한 편으로는 단점이 되는 것들이다. 윤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고 흥태는 자신의 편견을 정의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달숙의 공감은 때로 호기심과 구분되지 않고 지훈의 시각은 사건의 사회적, 법적 의미를 이해하게 하지만 반면 개인적인 명예욕에 치중된다. 그러니 독자들은 어느 한 명에서 서사의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된다.

또한 탐정, 즉 화자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사연이나 드라마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조사관 시리즈>의 서술적 특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미국 드라마인 <크리미널 마인드>(CBS, 2005-2020)와 같은 다인원의 수사팀이 범죄를 추적하는 수사물들은 이 수사관들 중 한 명을 해당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 하여 이야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사관들은 반드시 그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사연을 갖고 있으며 시청자는 그것을 통해 공감을 유도하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사관 시리즈>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은 배제된다. 흥태의 경우가 유일하게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한 일종의 트라우마적 요소를 드러낼 뿐 여타의 탐정들이 왜 이 사명을 갖게 되었고, 사건에 몰입하는가를 사연을 통해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수사관들은 특별한 사연을 갖고 인권위 조사관이 된 이들이 아니다. 그저 그들의 시각에서 이 조직은 평범한 직장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이러한 서술의 요소들은 이 4인의 탐정들이 시점자이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초점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이 사건에 몰두하고 왜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해야 하는가는 탐정의 개인적인 목적성으로 연결되지 않기에, 사건과 탐정들은 분리된다. 이들이 범죄의 해결과 진실의 추구라는 추리소설의 목적을 실현하는 이유는 그들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진실을 추구하고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추적을 계속하는가. 그것들은 이제 사건에 관계하는 다른 인물들, 즉 피화자들에게로 넘겨진다.

3.2. 접촉

접촉은 화자와 피화자 사이의 관계, 즉 화자가 피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전하는 방식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의 문제를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피화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피화자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추리소설에서 서사를 일구어내는 '피화자'는 크게 사건과 인물로 나뉜다. 그리고 이때의 사건이란 주로 범죄의 발생과 해결 과정, 인물은 범인과 피해자, 그리고 증인(부수적 인물)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추리소설이란 범죄소설과는 다르게 탐정을 중심으로 논리적 해결의 과정을 다루는 서사 구조를 뜻한다. 이에 대체로 중심 화자의 자리에는 탐정 혹은 탐정의 조수(탐정의 시선을 확인하고 대신해줄 수 있는 위치의 인물)가 서게 된다. 그러니 탐정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 인물들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해 접촉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다.

우선 사건에 대한 <조사관 시리즈>의 접촉 형태를 살펴보자.

이게 바로 현장이야. 인권, 인권 하고 입바른 소리만 해대는 너희들이 굳이 들추어보고 싶어하지 않는 거친 세계지. 너희들이 책에서 배운 지식을 내세워 비호하고 싶어 나는 인간들이 바로 다른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인 거야.(...) “헤마토포비아. 피 공포증이라고요, 이달숙 조사관님은. 이제 어찌실 거예요?” (『시궁창과 꽃』)

<조사관 시리즈> 안에는 피 공포증을 가진 조사관이 등장한다. 물론 이는 이달숙 조사관 한 사람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조사관들 자체가 피가 흐르는 현장에 직접

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황이다. <조사관 시리즈>에는 수많은 살인사건이 등장하지만 탐정을 비롯한 그 누구도 살인의 장면 자체에 시공간적으로 직접 다가가지는 않는다. 시리즈의 단편 총 9편(『달리는』 5편, 『구하는』 4편)에서 살인사건과 그 범인을 찾는 과정을 중심 서사로 하는 6편 중, 살인의 장면이 실시간으로 묘사된 것은 「프롬 제네바」 한 편뿐이다.²⁴ 나머지 이야기들에서 살인의 장면은 추후 작성된 보고서에 서술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내리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장면을 실시간으로 묘사하는 일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소설적 장치이다.²⁵ 말 그대로 스펙터클을 선사하는 범죄와 사건의 묘사는 대부분의 추리소설과 범죄소설이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혹은 범죄의 잔혹함을 묘사하여 범죄 해결의 당위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장면으로 생각되어 왔다. <조사관 시리즈>는 그러한 장면들을 무미건조한 보고서로 대체해 버린다. 피가 흐르지 않는 살인. 그것이 <조사관 시리즈>가 보여주는 살인사건의 특징이다. 그러한 사건에 대한 접촉 방식은 독자들을 조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현장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예를 들어 「푸른 십자가를 따라간 남자」와 그 후속편인 「끝까지 구하는 승냥이」는 추리소설이 다루는 가장 자극적인 범인인 연쇄살인범 최철수의 과거를 뒤쫓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살인의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최철수의 범행 장면들은 전부 경찰의 보고서나 뉴스의 요약이 대신하고 있으며 조사관들이 개별적으로 발견한 그의 첫 번째 살인 역시 그 당시 장면을 목격하고 어린 최철수와 이야기를 나눈 증인의 입을 빌려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살인의 장면 자체에 대한 화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사관 시리즈>가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변인들의 증언이다.

사건들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것과는 반대로 <조사관 시리즈>에서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전해진다. 시점의 문제에서 화자가 인물들에게 직접 발언권을 준다는 것은 이야기의 초점이 집중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장치이다. <조사관 시리즈> 안에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권을 갖는 것은 오직 증인들뿐이다. <조사관 시리즈>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범인과 피해자의 목소리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이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건에 개입하고 나아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목적을 갖지 않은 인권위 조사관이라는 그들의 지위로 봤을 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사관 시리즈>는 연쇄살인범 최철수와 대면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조사관 시리즈>에서 사건의 해결은 주변인들과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인 건물 청소부의 증언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이면서 우리 사회가 인간의 계급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이다. 「버릴 수 없는 여자」는 범인과 피해자의 목소리 하나 없이 사건과 한 인간의 삶을 재구성하고 조현병 환자 한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거울 얼룩」에서 목격자들의 증언은 그저 진실과 기억이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범한 이들이 범죄에 휘말리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몰락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사관 시리즈>가 독자에게 접촉시키는 피화자의 중심에는 피 흐르는 사건이 아닌 사건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말 그대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이르는 과정은 이 이야기들이 서사의 중심에 기존의 추리소설과는 다른 대상들을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이야기들이 죽어 있는 시신이나 장면보다는 살아있는 인간의 삶을 들여

24 해당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달리는 조사관』: 「시공창과 꽃」, 「푸른 십자가를 따라간 남자」, 「승냥이의 딜레마」; 『구하는 조사관』: 「프롬 제네바」, 「버릴 수 없는 여자」, 「끝까지 구하는 승냥이」.

25 수잔 S. 랜서, 앞의 책, 156쪽.

다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조서관 시리즈>가 원하는 진실은 무엇이며 이 이야기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범죄와 추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자.

3.3. 입장

추리소설은 결국 범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 추리소설은 ‘범죄의 해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을 취하기 마련이다. 이른바 ‘후더닛whodoneit, 하우더닛howdoneit, 와이더닛whydoneit’이라는 미스터리 서사의 기본 문법 중, 어디에 치중하는가에 따라 추리소설은 ‘범죄의 해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들만의 입장을 보여준다.²⁶ 이 중 후더닛과 하우더닛의 문제는 사실상 추리소설의 근간이 되는, 장르의 기본적인 규칙에 입각한 문제다.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와 범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저질러졌는가라는 트릭의 문제는 함께 어우러져 ‘추리’의 목적이 되어 왔다. 하지만 단지 숨겨진 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가 만들어놓은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고전적 형태의 추리소설은 하나의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서의 재미는 줄 수 있으나 추리소설이 가져야 할 사회의 범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의 사회파 추리소설들은 ‘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를 일으키는 사회적 배경이나 악의 발생원인 등을 재구성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자격과 접촉의 두 가지 시점 구성 양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조서관 시리즈>가 보여주는 입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조서관 시리즈>는 어법적, 시공간적으로 사건 자체와 그 내부의 핵심 인물들에게서 초점을 분산시킨다. 둘째, 심리적,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주변 인물들과 그들의 증언과 친밀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후더닛, 하우더닛, 와이더닛에 대한 <조

서관 시리즈>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누가’와 ‘어떻게’, 그리고 ‘왜’의 문제들을 모두 다루면서도 그것들을 ‘범인’이나 ‘탐정’들과 같은 인물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범인이 누구인가와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는가는 핵심적인 추리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데에 탐정 개인의 사연이나 능력 혹은 관점이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는다. 와이더닛에 있어서 범죄의 동기 자체 역시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와 범인의 관계 양상도, 그들 사이의 사연도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다.

<조서관 시리즈>가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범죄가 불러일으킨 부수적인 피해란 무엇인가, 범죄라는 사건은 현실의 사람들에게,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이다. 탐정이나 범인과 같은, 기존의 추리소설이 중심 인물로 초점을 맞추었던 이들에게서 초점을 분산시키고 보이지 않는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조서관 시리즈>는 새로운 양상의 ‘후더닛’, ‘하우더닛’, ‘와이더닛’의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버릴 수 없는 여자」는 조현병에 걸린 여성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방치되고 우연적인 일로 살해된 상황을 둘러싸고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살인사건의 범인, 방법, 동기를 밝히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현병에 걸린 여성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와,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그리고 다양한 방치의 동기들이 밝혀진다. 누가, 어떻게, 왜의 문제를 하나의 인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는 것, 범죄와 악은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왜’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밝혀져야 하는가의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을 <조서관 시리즈>는 진실이라고 부른다.

<푸른 십자가> 연작에는 이러한 입장이 명쾌하게 나타난다. 이하선의 시신을 찾기 위한 조사가 연쇄살인범 최철수의 역사와 연결되지만 그 과정에서 연쇄살인이라는 사건의 범인이나 방법, 동기에 새로운 면모가 밝혀지지 않는

26 박인성, 「미스터리란 무엇인가」, 『계간 미스터리』(전자책) 71, 나비클럽, 2021 가을.

는다. 범인과 방법은 이미 밝혀져 있고, 동기 역시 명확하게 제시된다. 최철수는 변명과 설명의 여지가 없는 그저 ‘쾌락살인마’일 뿐이다. 소설은 서사적 기교를 통해 독자의 반응, 즉 독자가 누구에게 이입할지, 누구를 반대할지를 예상하고 조종한다.²⁷ 예를 들어 소설에서 한 인물의 어린 시절이 나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인물을 미워하기 힘들어진다. <푸른 십자가>는 어린 최철수의 삶을 재구성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 최철수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이야기 안에서 재조명되는 것은 연쇄살인이라는 충격적 사건 뒤에서 잊혀졌던 수많은 주변인들의 이야기다. 연쇄살인범 최철수가 왜 살인범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살인을 하게 만든 환경인 부조리한 사회비 종교 단체의 문제를 다루고, 조현병 환자였던 이하선이 왜 위협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정신병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인물들의 삶이 재구성된다.

결론적으로 <조사관 시리즈>가 화자인 탐정과 피화자인 사건, 그리고 인물들을 제시하는 위의 두 방식을 통해 드러내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서사의 밖에 있는 독자와 탐정, 사건과 범인들 사이의 어법적, 시공간적 거리감은 최대한 멀게 유지한다. 탐정들은 누구의 목소리도 대변해주지 않으며 범인이든 피해자든 그들의 서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나아가 사건의 발생과는 시공간적 거리를 유지하며 가장 객관적이며 건조한 방식으로 범행의 장면들을 만나게 한다. 반면 부수적 인물들에 대한 심리적이며 이데올로기적 거리감은 줄여준다. 직접적으로 부수적인 인물들의 내면과 목적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말이다. 하지만 <조사관 시리즈>의 심리적 특성과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은 어느 한 방향으로 한정지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탐정들의 자격적 특성, 그들이 만나는 인물들 각각의 목소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27 양자오, 앞의 책.

화자인 탐정과 피화자 중 사건 혹은 범인 자체는 서사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다. 이들이 사건을 저지르고 휘말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은 그들의 서사가 아닌 주변인들의 서사가 대신한다. 이 과정에서 서사의 주체가 뒤바뀐다. 여전히 화자는 탐정이고 사건의 중심에는 범인과 피해자가 있겠지만 이야기를 하는 이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주변인들이다. 주변인들이 증언을 전달하는 방식은 그들의 삶이 내포한 고충들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은 오직 범죄의 해결을 위한 증언만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조사관 시리즈>의 화자인 탐정들이 가진 이데올로기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또 빠르게 다른 탐정들에 의해, 주변인들에 의해 부정되기도 한다.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 혹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독자에게 넘겨진다. 추리소설의 작가가 이데올로기와 입장의 문제를 결정하는 일을 독자에게 넘겨주는 일은 매우 큰 변칙이다. 추리소설이 가진 합리성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귀결되는가는 서사 내에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랑시에르는 추리소설을 오직 픽션적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구현된 장르라고 규정한다.

포가 고안한 추리 합리성은 근대소설이 보잘것없는 존재와 사물의 세계 속으로 사라지는 것에 맞서 모든 세부 사항이 그 기능에 맞고 모든 결과가 원인으로 되돌아가는 아름다운 행동의 일관성을 내세워야 했다. 그러나 추리 합리성은 행동과 행동의 합리성을 둘로 나눔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추리 합리성은 작용인의 연쇄사슬을 종종 하찮은 것에 이르기까지 가장 세게 조여야 했지만, 이는 그것을 목적인의 질서로부터 더욱더 근본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함이다.²⁸

송시우는 다시 추리소설의 세계를 픽션적 합리성의 세계로부터 현실적 불합리성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범인이

28 자크 랑시에르, 최의연 역, 『픽션의 가장자리』, 오월의봄, 2024, 144쪽.

만들어낸 일탈과 불합리를 탐정이 합리성의 세계로 이끄는 방식은 부정된다. 그는 보잘 것 없는 존재와 사물들, 보이지 않는 것들로 처리되어 추리소설의 합리성 아래에서 사라졌던 불합리한 현실의 문제들을 이야기 내에 불러낸다. 그가 해결해낸 범죄들은 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며 문제의 해결은 종종 인과와 논리가 아닌 우연과 왜곡, 그리고 오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완벽한 논리성이나 인과적 합리성을 가진 서술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완벽한 진실이 밝혀지는 사건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진실은 논리나 합리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조사관 시리즈>는 인과성의 영역에서 벗어난 추리소설을 꿈꾸며 그 안에서 이상적이며 환상적인 추리소설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추리소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안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노력일 것이다.

4. 나오며

현재의 추리소설은 허구적 합리성과 논리를 실현하던 자신들의 장르적 규칙에서의 일탈을 꿈꾸고 있다. 장르 문학으로서 독자에게 안전한 재미를 선사하며 다른 방면으로는 문학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추리소설이 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이라는 하나의 목표성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리소설이 자신의 이야기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인물이다. 추리소설은 늘 탐정과 범인의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를 진행시켜오던 장르였고 이러한 규칙과 편파적 초점 집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의 추리소설들은 다양한 시도를 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수잔 S. 랜서의 '시점의 시학'이라는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하여 추리소설에 있어 시점 주체들이 어떠한 권력 구도를 이루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에 따라 시점을 자격, 접촉, 입장의 세 키워드로 분석해 봤을 때 자격은 화자의 정체, 접촉은 피화자의 정체와 그에 대한 태도, 입장은 이 정체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야기의 초점이 재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한국 추리소설의 활발한 창작자인 송시우의 『달리는 조사관』과 『구하는 조사관』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권력 구도와 어떠한 인물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있는가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우선 주요 화자인 탐정들은 국가인권증진위원회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사회적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행하고 서술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다만 이들의 지위에 대한 인식과 자신들의 조직과 진실을 대하는 입장은 서로 판이하게 다르며 반목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나아가 탐정들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며 <조사관 시리즈>는 특정한 화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도록 이야기와 독자의 거리를 조절한다. 피화자를 범죄라는 사건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주변 인물들로 나누어 살펴봤을 때, <조사관 시리즈>는 사건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게 하며 증언과 인물들의 말은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 즉 이 이야기가 추구하고 있는 진실에 대한 <조사관 시리즈>의 차별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서사적 전략이 된다.

추리소설이 사건의 해결에 대한 입장을 '후더닛', '하우더닛', '와이더닛'의 세 가지 중 하나로 취하고 있다고 했을 때 <조사관 시리즈>는 이 세 가지 사건 해결의 결과들을 특정 인물 개인으로 귀결하는 것이 아닌 보다 확장된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범인이 누구인가, 범행 방식은 무엇인가,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에서 하나의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인물들 각각은 누구이며, 그들이 사건에 개입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나아가 하나의 사건이 왜 이 인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이러한 추리소설적 입장을 견지하며 <조사관 시리즈>가 보여주는 것은 한 사건의 해결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라는 태

도이다. 범죄라는 사건의 외부에서 부수적인 인물들로 보였던 수많은 현실적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범죄의 해결에 관여하게 되며, 범죄의 영향을 받는가를 끝까지 밝혀내는가가 오히려 이 이야기가 추구하는 진실에 가깝다.

결국 <조사관 시리즈>는 이를 통해 악의 원인을 특정한 범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하거나, 악과의 대결을 특정한 탐정의 우수한 두뇌에게 맡겨두지 않는 방식으로 바라본다. 과거 서사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과 주변에 있었던 이들의 구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탐정과 범인에게 맞춰져 있던 초점을 분산하여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에게 나눠주며 이 이야기는 범죄라는 사건이 단지 그 범인이나 동기를 찾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들이 찾고 있는 진실은 하나의 범죄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 조직의 문제들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보통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랑시에르가 지적한 바의 추리소설의 한계인 픽션적 합리성에서 벗어나 불합리성 속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추리소설의 서사적 목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송시우, 『달리는 조사관』(전자책), 시공사, 2015.
 _____, 『구하는 조사관』(전자책), 시공사, 2022.

2. 단행본 및 논문

- 계정민, 『범죄소설의 계보학』, 소나무, 2018.
 듀나·박혜진 외, 『악인의 서사』(전자책), 돌고래, 2021.
 박인성, 『이것은 유해한 장르다』(전자책), 나비클럽, 2024.
 수잔 S. 랜서, 김형민역, 『시점의 시학』, 좋은날, 1998.
 서미애외, 『단 하나의 이름도 잊지 않게』, 에오스, 2021.
 _____, 『파괴자들의 밤』, 안전가옥, 2023.
 _____, 『미친 X들』, 안전가옥, 2024.
 양자오, 이경민역, 『추리소설 읽는 법』(전자책), 유유, 2017.
 자크랑시에르, 최의연역, 『픽션의 가장자리』, 오월의 봄, 2024.
 테리 이글턴, 오수원역, 『악: 우리시대의 악과 악한 존재들』, 이매진, 2015.
 토마나르스작, 김중현역, 『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3.
 박미령, 「타자담론의 서사전략: 전통 추리소설의 모방과 변주」, 『한국노어노문학회지』 19(3), 한국노어노문학회, 2007.
 박인성, 「미스터리란 무엇인가」, 『계간 미스터리』(전자책) 71, 나비클럽, 2021가을.
 오혜진, 「여성 탐정 전성시대: 서미애, 박하익, 송시우의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72, 우리문학회, 2021.
 율리히 브로이히, 진상범 역, 「추리문학에 대하여」, 『대중서사연구』 3(1), 대중서사연구회, 1997.
 전용갑, 「사실주의적 환상성의 전략으로서의 추리소설기법」, 『외국문학연구』 17, 외국문학연구회, 2004.

3. 기타 자료

- 「두 번째 추리소설 '달리는 조사관' 쓴 인권위 직원 송시우 씨 "한국적 이야기 담고 싶었다"」, 『경향신문』, 2015.12.8.
 「범인 내면서 풀어낸 사회 문제, 추리물 쓰는 이유죠」, 『서울경제신문』, 2023.11.10.

Abstract**A Study on the Narrative Subject of Modern Korean
Mystery Novels**

Chin, Sol-A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ystery fiction has always been a genre that shows a structure in which power is concentrated on the two characters of a detective and a criminal.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power structure of the viewpoint subjects in mystery novels based on Susan S. Lancer's *Poetry of Viewpoints*. Accordingly, the "Investigator Series" among Song Si-woo's works was analyzed with viewpoint analysis in three directions: qualification, contact, and position. First of all, qualification shows the discord between social identity and personal identity so as not to look at the event from the perspective of a specific speaker in this narrative. It also shows a form of direct contact with the incidental person indirectly from the case among the subject. Finally, from the standpoint of the story, "Investigator Series" shows an extended form of pursuit of truth rather than who the criminal is, the method of the crime, and the motive of the crime. The truth they are looking for is to confirm the effect of a crime and the problems of the social organization surrounding it on the average person who has been invisible.

Keywords detective novel, a narrative subject, point of view, qualification, contact, position, Song Si-woo
